쌍계사

■ 코스 지도

지리산 명찰인 쌍계사를 석문부터 국사암까지 걷는 코스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석문	석문 글씨에 대한 유래	민속
2	일주문	쌍계사의 유래	문화재
3	천왕문, 금강문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쌍계사 사천왕상	문화재
4	팔영루	범패의 보급에 관한 이야기	문화재
5	진감국사 대공탑비	대공탑비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	문화재
6	대웅전	대웅전의 보물들	문화재
7	금당영역	금당의 역할	문화재, 일화
8	팔상전과 옥천	팔상전과 옥천 이야기	문화재, 설화

1. 석문

하동 '쌍계사'는 '흐르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쌍계사의 '쌍계'라는 이름이 '두 줄기의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두 줄기의 시내가 쌍계사 앞을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흐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음악입니다. 쌍계사는 우리나라 3대 성악곡 가운데 하나인 범패가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불교음악제도 열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꽃길을 따라 흐르듯 쌍계사로 들어서는 길. 우리는 계곡 입구에서 큰 바위들을 보게 됩니다. 주차장 왼편의 상가뒤쪽에 있어 자칫 놓칠 수 도 있지만 '석문'이야말로 진정한 '쌍계사'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보고 가셔야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바위들에는 빨간 글씨로 각각 '쌍계'와 '석문'이라 새겨져 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꽤 보이는데도, 그 글씨가 참 또렷합니다. 이 글씨는 신라 헌강왕의 명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이 지팡이 끝으로 쓴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이것을 보고 조선시대의 고승 소요선사는 이런 시를 쓰기도 했다는군요.

"두류산 방장산은 참으로 신선이 사는 곳, 맑고 기뻐하며 석문에 새겼으니
석문 필적은 세상 보배가 되었는데, 금단에서 노닐다가 흰구름에 잠기네."

시에 등장하는 두류산과 방장산은 모두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신선이 노니는 아름다운 지리산자락에 자리 잡은 쌍계사.
이제 우리는 서서히 그 길로 접어듭니다.
석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올 때 까지요.

2. 일주문

쌍계석문을 지나 천천히 오르는 동안 두 번의 물길을 건너게 됩니다.
이 개울을 건너면 속세에서 피안의 세계 즉 '불교에서 의미하는 해탈에 이르는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눈앞에 화려한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일주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속세를 떠나 불도에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지요.
그런데 쌍계사 현판을 보니 '지리산 쌍계사'가 아닌 '삼신산 쌍계사'라고 쓰여 있네요?
예부터 중국에서는 신선들이 머무는 산이라 하여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삼신산'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본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삼신산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중 방장산은 지리산을 의미합니다.
번뇌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주문 앞에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냇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옥천인데요, 원래 쌍계사의 이름은 옥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정강왕이 산사 앞을 흐르는 두 물줄기에 반해 옥천사를 쌍계사라 고쳐 부르게 했답니다. 이 곳 옥천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샘솟는 곳이 있다는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옥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샘이 쌍계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옥천보다는 경내에 있는 옥천이 조금 더 유명한데요 그 옥천의 비밀, 궁금하시죠? 잠시 후 도착하게 되면 그 비밀을 알려드릴께요.

자, 이제 일주문을 들어서야 할 텐데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쌍계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가야겠지요? 쌍계사는 722년 신라 성덕왕 때 세워진 사찰입니다. 의상대사의 제자 삼법스님이 당나라의 육조혜능의 유골 중 머리뼈 부분을 가져 와 봉안하면서 창건됐습니다. 육조혜능은 달마스님을 시작으로 6번째 선종의 시조라고 '6조 대사'라고도 불리우는 당나라 시대의 선승입니다.
육조혜능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불도의 깨달음을 얻는 선법을 꽃피운 분으로 중국의 선불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당시 삼법스님은 육조혜능을 만나기 위해 당나라로 갔지만 그 분은 이미 고인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유골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봉인해 드려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법스님 꿈속에 육조혜능이 나타나 눈 쌓인 계곡 칡꽃이 피어 있는 곳에 봉인하라고 계시하셨다고 하죠. 그 계시를 받고 삼법스님이 찾은 절터가 바로 이 쌍계사입니다.

자, 그럼 육조혜능의 유골 일부가 묻힌 이곳, 쌍계사로 들어갑니다!

3. 천왕문, 금강문

일주문을 지나 속세를 떠나왔으니, 이제는 세속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차롄데요, 그곳이 바로 금강문과 천왕문이죠.
일주문이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라는 의미의 상징물이라면 금강문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 그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더욱 더 단단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금강역사가 모셔져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동자와 사자, 그리고 밀적금강이 서 있구요, 왼쪽에는 미소를 지으며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와 나라연금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금강문을 지나니 바로 천왕문이 나타나지요? 이곳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 즉,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향의 동서남북을 지키는 4대 천왕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 서쪽을 지키는 광목천왕, 남쪽을 지키는 증장천왕,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 그 주인공 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수도하는 스님과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귀를 내쫓아 수행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좌절을 없애 한마음으로 정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 외모 때문에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무서워하는 사천왕상이지만 이곳의 사천왕상은 꽤 유명하니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곳 사천왕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10여개의 조선후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찰의 사천왕상보다 1미터 정도가 더 높고 게다가 나무로 제작됐는데도 보존상태가 아주 좋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곳 사대천왕상은 천왕문과 함께 경남유형문화재로 지정 돼 있습니다.
발밑을 보세요? 일반적인 사천왕상 밑에는 마귀들이 깔려 있는 반면 이곳은 당시의 부패한 관료와 왜놈들이 밟혀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사천왕상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쌍계사의 사천왕상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쌍계사 경내를 둘러보겠습니다.

4. 팔영루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찬불가인데요, 왜 이런 음악을 들려주나 싶으시죠?
천왕문을 지나 계단 위에 있는 2층 목조건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저 곳이 이런 음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팔영루입니다
불교음악의 일종인 '범패'가 널리 알려진 곳이면서 범패 명인들의 교육장으로 이용됐던 곳이지요.
인도어를 '범어'라고 하듯이 인도의 소리를 '범패'라고 지칭했는데 '범'은 천상의 소리를 뜻하고 '패'는 '감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패는 제를 올릴 때 쓰는 불교음악으로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전통 성악곡의 하나인데요, 장단이 있긴 하지만 가곡이나 판소리와 같이 정확한 박자가 없는 소리로 이뤄진 것이 특색입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어렵죠.
흔히 스님들 사이에서는 범패를 배워야지만 진정한 승려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스님들은 범패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패를 우리나라에 보급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진감국사입니다. 옥천사, 즉 지금의 쌍계사를 창건한 진감국사는 중국에서 불교음악을 배워 와 이곳에서 우리 민족 정서에 잘 맞는 범패를 만들어 신라불교음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요.

'팔영루'라는 이름도 진감국사가 섬진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률'로 '어산'이란 불교음악을 작곡했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어산'이란 '범패'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팔음률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여덟 개의 소리와 음의 가락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5. 진감국사 대공탑비

음악이 흐르는 팔영루를 지나 대웅전으로 향하다 보면 버팀목은 화강암이고, 몸체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비석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진감국사 대공탑비죠.
이 비석은 887년에 범패를 널리 알린 진감국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데요, 지금은 국보 47호로 지정돼 쌍계사에 존재하는 유일한 국보가 됐습니다.
비문은 우리나라 한문학의 시조가 되는 시인이자 문장가 고운 최치원선생의 작품이며, 고운 선생의 사산비 즉 선생이 직접 글을 새긴 4개의 비석 중 하나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 수는 2천 자가 훌쩍 넘어 200자 원고지 열두 장 정도의 분량이며 현존하는 금석문 가운데 으뜸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대공탑비는 나중에 설명할 '금당'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말씀 한 번 들어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대공탑비 비석이 주 건물인 대웅전을 바라보지 않고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쌍계사의 또 다른 영역인 혜능대사의 머리뼈를 모신 금당 쪽을 향하고 있지요. 이것으로 봐도 쌍계사에서 금당이 지니는 가치를 엿볼 수 있고, 대공탑비가 대웅전보다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탑비의 위치만으로도 쌍계사는 금당 쪽이 먼저 지어졌고, 대웅전 쪽은 나중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6. 대웅전

진감국사 대공탑비에서 올려다보면 쌍계사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이 보입니다.
지리산을 등에 지고 앉은 모습이 꽤 위엄 있어 보이는데요, 대웅전은 불교 선종 계통의 절에서 본존 불상을 모신 주가 되는 법당이지요.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고 그 좌측엔 아미타불, 우측엔 약사여래불이 계십니다. 석가모니는 '화신불' 즉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 자신이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이고, 아미타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할 때 그 아미타불이 맞습니다.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이름이죠.
약사여래불은 사람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인데요, 빌고 또 빌면 중생을 구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대웅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러가지 않더라도 쌍계사의 대웅전은 둘러볼 만합니다.
모든 것이 예술작품처럼 보이거든요. 우선 대웅전 건물 자체가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지붕의 모양과 처마의 빛깔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웅전 내부 기둥과 벽면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함께 모셔진 불상과 보살상들은 아주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표현돼 있는데요, 손과 발 모양이나 어깨에 두른 천의 표현력을 보고있으면 그 유연함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특히 이곳 석가모니의 표정을 두고 아주 인간적이고 인자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조각예술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뛰어난 솜씨는 대웅전에 걸려있는 '삼세불탱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탱화란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액자나 족자형태로 만들어진 불화를 말합니다.
특히 쌍계사에 있는 '삼세불탱화'는 인물들의 배치나 색감, 화면구성 등이 18세기 후반 불화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색감과 다양하고 많은 인물의 세세한 묘사는 불화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고 보니 대웅전은 하나의 예술전시회장 같은 느낌이네요.

7. 금당영역

대웅전을 둘러보고 나오면 자연스레 금당을 향하게 됩니다.
쌍계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옛터인 금당영역과 새 터인 대웅전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대웅전 앞마당 끝에서 옥천교를 건너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금당 영역입니다.
금당은 본존불 즉 예배의 중심이 되는 부처를 모시는 사찰의 중심건물입니다

이곳 쌍계사의 금당 영역은 진감국사에 의해서 기틀이 잡힌 곳이고 대웅전 영역은 1,600년대 초반에 중창되었습니다. 일주문, 팔영루, 대웅전 등은 대웅전 영역에 위치한 것이고, 금당, 팔상전, 청학루 등이 금당 영역에 속합니다.
금당 영역에는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청학루'와 이미 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스님들의 참선을 위한 '선방'등이 있습니다.
동안거나 하안거 기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동안거는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구요, 하안거는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금당영역에도 일반인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당영역을 둘러볼까요. 청학루 뒤쪽에 위치한 금당은 중국 불교 선종의 6대조인 혜능선사의 머리 유골을 모시고 있는 건물이죠. 진감국사가 건물을 세우고 육조영당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이후 금당이라 불리게 됐다고 하네요. 건물 안엔 7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탑은 1,800년대에 목압사의 석탑을 용담스님이 옮겨놓은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 탑은 선종의 6대조 혜능의 머리를 모셔서 '육조정상탑'이라 불렸고, 금당을 육조정상탑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법당에 탑을 모신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건물밖에는 '육조정상탑'과 '세계일화조종육엽'이라 적힌 현판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말 명필이구나!'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조선 시대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선생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당시 쌍계사 스님께 차 선물을 받고 보답으로 쓴 것이라 하네요.
금당 좌우편에는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선방으로 수많은 고승들이 배출된 명당입니다.
현판에 쓰인 '세계일화조종육엽'은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니 육조를 시조로 한다'는 의미로 곧 '육조혜능'을 나타냅니다

금당영역의 선방은 대선사들이 공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당 앞의 동방장과 서방장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창한 경허스님과 '무소유'로 유명하신 법정스님이 수행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8. 팔상전과 옥천

금당 앞에 있는 건물은 팔상전인데요, 옛날 법문을 펼쳤던 법당입니다.
이곳에는 석가불이 설법하는 모습이 담긴 보물 '영산회상도'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여덟 개 장면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팔상도'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 원작은 쌍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중이고, 복사본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팔상전 앞에는 아주 유명한 샘이 있는데요! 바로 옥천입니다.
쌍계사 입구에 있던 시내도 옥천, 이 샘의 이름도 옥천이죠. 근데 이곳의 옥천이 좀 더 유명하다는데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남1 어여 마셔보시게.
남2 진짜 이 물만 마시면 제 병이 싹 다 낫는 거예요?
남1 그렇다니까 그러네. 이 물이 옥천이라 하는 것인데, 자네 같은 나병환자한테는 특히 효과가 좋다 하드라고. 어여 많이 마시라니까!
남2 근데 이 샘은 이상하게 두 군데에서 물이 솟아요. 어느 것을 마셔야 할지....
남1 아! 자네는 왼쪽 샘을 마셔야 하네. 오른쪽 샘이 양수고, 왼쪽 샘이 음수인데, 양수는 여성이 마셔야 좋고, 음수는 남성이 마셔야 좋다고 하거든.
남2 물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겠어요.
남1 어허! 마셔보면 자네도 '어 맛이 다르네?'할 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니까 자네도 어서 많이 마시고 빨리 병을 떨쳐내야지~!!
남2 네, 알겠어요....

쌍계사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쌍계사가 세워지기 전 삼법화상이 육조혜능의 머리유골을 묻고 세운 '국사암'과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불일폭포도 만날 수 가 있습니다.
쌍계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간 속에 잠겨있는 다양한 사연들을 되새기면서 쉬엄쉬엄 지리산 산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속세를 떠나 참선할 수 있는 사찰도 좋지만 자연 속에서 복잡한 머리는 비우고, 따뜻한 가슴을 채우는 걷기라면 쌍계사 여행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